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16호 [루게 제2484호]

주제 107
(2018)년 4월

15일
일요일

음력 2월 30일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사설

절세위인의 조국통일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

뜻깊은 태양절을 맞은 이 시각 우리 겨레는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 이시며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가슴을 뜨겁게 적시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애국위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통일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으며 민족의 숙망을 실현하는 길에 한없이 고귀한 업적을 남기시었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주석님의 필생의 위업이였으며 절절한 념원이었다.

어버이주석님께서서는 우리 겨레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 하시며 나라의 통일을 위해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시었다. 자신의 근심걱정은 오직 하나 아직 조국을 통일하지 못한것이며 자신께서는 자나깨나 분열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생각뿐이라고, 조국이 통일되면 10년은 더 젊어질것 같다고 하시며 그이께서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시고 멀고먼 길을 걸으시었다. 나라의 정사를 토론힌할 때에도, 창밖에 눈비내려도 언제나 피를 나는 겨레를 생각하시고 통일문제로 가슴 불태워오신 주석님이시다.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었다.

어버이주석님께서 내놓으시고 변함없이 견지하신 조국통일로선은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민족자주의 로선이며 통일조국의 부강발전과 전 민족의 융성번영을 위한 참다운 애국애족의 로선이다.

70년전 남조선에서 범죄적인 《단선단정》음모가 꾸며지던 엄혹한 시기에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 자련석회의를 소집하시어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리게 하신분도 주석님이시고 오래동안 격려상태에 있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주시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펼쳐주시분도 어버이주석님이시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시어 겨레가 통일로 가는 밝은 앞길을 열어주시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3대원칙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어있으며 북과 남의 화해와 전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있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래동안 존재하여온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조국통일을 가장 빨리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조국통일3대원칙이 마련됨으로써 우



리 겨레는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으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숙망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세우시어 조국통일의 강력한 주체적력량을 마련해주시었다.

어버이주석님께서서는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민족적단결의 기초로 삼으시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키는것을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내세우시였으며 넓은 도량과 아량있는 포용력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과거를 불문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주석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의 사상과 리념, 주석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간애와 민족애는 각계각층의 동포들을 민족적단

합과 조국통일의 길에 과감히 나서게 한 힘의 원천으로 되었다.

위대한 주석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을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조직적으로 묶어세우는 사업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 통일애국의 주체적력량은 전 민족적범위로 확대강화되었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그토록 정력적으로 활동해오신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애국애족으로 세차게 고동친 위대한 심장의 마지막 박동도 조국통일을 위해 바치시었다.

실로 위대한 주석님께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바치신 로고와 헌신은 끝이 없고 쌓으신 업적은 하늘에 닿고있다.

위대한 김정은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주석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실 불라는 일념을 안으시고 통일위업실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

로작들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시어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식화해주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어 민족대단결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으시었다. 뿐만아니라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겨레에게 안겨주시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 격동적인 자주통일시대를 펼쳐주시었다.

참으로 조국통일위업의 길에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튼튼한 밑천이다.

오늘 북남관계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는 새로운 전환의 국면

이 열리고있다.

북남관계발전의 새 력사를 쓰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전략적구상과 대범한 결단, 뜨거운 민족애의 손길에 받들려 제23차 겨울철 올림피경기대회를 계기로 공화국의 고위급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시범단 등 대규모사절단이 남조선에 파견되어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열풍을 일으켰다. 얼마전에는 평양에서 북남예술인들의 련환공연과 북남태권도시범단의 합동시범출연도 진행되어 화해의 열기를 드높였다.

북과 남사이에 마련된 극적인 관계개선의 흐름은 북남관계의 파국을 끝장내고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기어이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마련된 소중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업적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

한 우리 민족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에 관한 조국통일방침을 제시하시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는데서 현시기 철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방도들도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올해신년사에서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제시하시었다.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해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에 의하여 올해에 들어와 이 땅에는 화해와 단합, 관계개선의 따뜻한 봄이 찾아오게 된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얼마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한 보고에서 이달 27일 판문점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당면한 북남관계발전방향과 조미대화전망을 심도있게 분석평가하시었다.

다가오는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통일의지와 대범한 아량, 동포애적조치에 의해 마련되게 된 력사적사변이다.

조선반도와 행성에 충격과 감동의 거대한 해일을 일으키고있는 극적인 정세발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조국통일운동을 가장 끝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가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위인중의 위인이시라는것을 가슴 뜨겁게 확신시켜주고있다.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단합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민족적화해와 단합,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원칙은 통일을 념원하는 우리 민족모두가 받들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질수 있어도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림장에서는 변화가 있을수 없다. 전체조선민족은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어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원칙과 그를 구현한 북남선언들의 기치높이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북남관계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려는 확고한 림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 온 겨레는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래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여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이 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고야말것이다.